

# 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5회차 결과 보고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3:30 ~ 16:30
장소	은산면 휴컴센터 대회의실(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694)
참석자	총 45명(발표자 2, 좌장 1, 지정토론자 5, 기록자 1, 광역센터 3, 그 외 참석자 33명)
주제	“『마을독본』의 미래를 논하다.”

## □ 주요 일정

구분	내용
1부	<b>발표 “『마을독본』의 현재와 미래”</b> • 『마을독본』 어떻게 활용할까? • 『마을독본』의 발간 경과와 2023년 발간 계획 및 전환 방향
2부	<b>쟁점토론 “『마을독본』의 미래를 논하다.”</b> • 『마을독본』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 토론 진행

## □ 주요 내용(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참고)

### ○ 발표 “『마을독본』 어떻게 활용할까?”

- 심수진 팀장(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청양군 대화마당’ 과 연계하여 심층 학습·토론 활동
- 2021년: 마을회의와 기록관리, 마을공동재산관리, 마을자치규약
- 2022년: 농촌공동체농업, 마을복지, 농촌마을 후계자
- 『마을독본』 읽기모임(함께한끼&함께한팁) 구성
-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
- 2022년 ‘청양마을교육공동체연구회’ 창립 포럼으로 확장
- ‘독본 사용법’ 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 학습 진행
- 거버넌스의 제도적 시스템 이해 및 업무역량 향상에 활용
- 핵심 내용의 역량평가 실시를 통해 이해도 평가 및 직원 역량교육, 업무분장에 기초자료로 활용
- 『마을독본』의 다양한 활용
- 선진지 견학지 선정, 신규사업 발굴, 거점공간 구비자료 등으로 활용

### ○ 발표 “『마을독본』의 발간 경과와 2023년 발간 계획 및 전환 방향”

- 강성준 연구원(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2023년 『마을독본』 발간 계획 및 전환 방향
-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추기 위해 판형 및 편집 개선 예정
- 농촌 마을리더,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를 주 독자로 하는 전문적인 내용 유지 및 일반 독자도 읽기 수월한 현장의 이야기 강화(필자 확대)
- 기존 텍스트 위주의 변형된 판형을 조정해 사진과 일러스트를 적극 활용하고 휴대성이 높은 규격으로 조정 예정

- 특히 민간 출판사를 통해 외주 제작하는 방식에서 광역 센터 자체 제작으로 전환을 통해 공공재로서 『마을독본』의 기능 강화
- 기존 유가 판매는 중단하고 비매품 배포(PDF 파일 공유)를 통해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
- 2023년 특집주제(안)
  -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특집 주제로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마을, 농촌마을 인구 유지 등

○ 쟁점토론 “『마을독본』의 미래를 논하다.”

- 좌장: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마을독본』의 발간 취지가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는가?

- 권영진 회장: 『마을독본』의 활용성은 책자라는 매체가 갖는 장벽이 크다고 생각됨. 현대 사회의 유튜브 영상, SNS 소통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독본』이 담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안현경 이사: 『마을독본』을 통해 제도적 체계와 관련된 정보는 사회적농업 거점 농장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하지만 앞서 언급된 높은 난이도 문제도 자주 목격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서 같이 읽고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를 활용해야 함. 필요를 느끼는 그룹에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됨.
- 이창신 센터장: 센터 업무로 『마을독본』 학습을 배정해서 업무 시간에 읽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마을 현장에까지 『마을독본』이 잘 활용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됨.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약간의 강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을독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안으로서, 시군역량강화 예산을 활용해 책모임 동아리를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좋겠음.
- 정명진 소장: 『마을독본』 발간 취지를 보면 마을만들기 관련 ‘공부자료’ 이자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공부자료’로서는 성공적이지만 ‘읽을거리’로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음. 지금까지의 『마을독본』이 충분한 ‘공부거리’를 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다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음. 활용성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내 보자면 『마을독본』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이미 다룬 주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읽을거리’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내용을 다루는 형태를 취해보면 좋겠다고 생각됨.
- 노승복 센터장: 센터장으로서 청년, 주민자치, 농촌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 장에 참여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마을독본』을 꺼내 읽고 있음. 그리고 청양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독본 사용법’을 통해 상근자의 역량강화에 활용하고 있음.

■ 『마을독본』 발간 20회,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 정명진 소장: 『마을독본』은 대부분의 필자가 학자인 점, 글체 자체도 논문처럼 딱딱한 문제가 있다고 느낌. 『마을독본』 편집 방향에 있어 20세기 계몽운동과 같은 태도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됨. 21세기의 집단지성, 대중지성 방식이 보완되길

희망함. 기존 원고의 수준이 높다보니 독자들의 자기 검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됨. 21세기 전문가의 역할은 계몽적 가르침보다 다양한 의견을 발굴하고 연결 짓는 일이라고 생각됨. 오늘과 같은 대화마당을 통해 특집주제를 잡아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으며 전문 필진과 현장 활동가, 주민리더 사이에 정보와 경험이 상호작용하고 선순환 되기를 희망함.

- **안현경 이사:** 『마을독본』은 굉장한 실용서임. 구체적인 정책이 다루어지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담고 있음. 이런 내용은 중앙정부조차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됨. 하지만 대중성을 위해 『마을독본』의 장점을 포기해야할지 생각해 봐야함.
- **정석호 센터장:** 학습자료로서 『마을독본』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됨. 2023년 개편안은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람. 전문 학술지와 같은 딱딱함은 조금 덜어내고 사진 자료와 같은 것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는 의견임. 광역 센터가 주도하여 『마을독본』을 제작해도 기존의 전문성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
- **장유리 주임:** 『마을독본』을 제작하는 출판사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자면 앞으로 광역 센터에서 직접 제작을 할 경우 업무량의 고려가 필요할 것임.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판형 변경, 사진·그림 사용 확대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런 방법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됨.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편안한 내용 전달이 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체 내용의 깊은 이해 및 필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함. 제작·편집만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마을독본』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권영진 회장:**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중간지원조직 신규직원 채용 시 『마을독본』 독해를 자기평가서로 제출. 둘째, 센터 내부 승진 평가에 반영. 셋째, 행정 및 민간(협의회, 마을조직 등)에서 『마을독본』 학습 모임 지원. 넷째, 『마을독본』 데이터 관리 철저. 다섯째, 농민 교육에 교재로 적극 활용. 또한 『마을독본』의 미래를 생각한 제안으로는 첫째, 농민이 농촌 마을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책무를 고양할 수 있는 주제 고민.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 안전한 먹거리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 주제 반영. 셋째, 지방소멸, 농촌재생, 고향세와 같은 최신 정책동향을 다루면서 토론의 장 제공. 넷째, 『마을독본』의 내용을 교과서에 소개
- **안현경 이사:** 지역별 실천 사례만 묶어 특별 주제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음. 그리고 여러 센터에서 제작하는 뉴스레터, 마을조사 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콘텐츠의 일부가 『마을독본』을 통해 유통되면 좋겠음. 아울러 마을기자단 양성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용의 다양성을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됨.
- **정명진 소장:** 중간지원조직 상근자들이 직접 쓰는 글이 많아지면 좋겠음. 주 독자층에게는 생생한 경험이 담긴 글이 가장 와 닿을 수 있음. 질의응답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질문으로 나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는 형식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노승복 센터장:** 앞서 계몽주의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특정 내용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외워서 숙지할 필요도 있음. 반면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됨. 핵심은 적절한 활용 방법론을 찾아 적용하는 일이라고 생각됨.

- **김기호 주임:**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마을독본』의 활용성을 느끼고 있음.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네트워크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함을 느낌.
- **김기영 사무국장:** 현장에서 발행되는 마을신문에 『마을독본』 내용 일부를 요약해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됨.
- **김정은 주임:** 청양 센터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미만의 상근자 입장에서 보면 『마을독본』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됨. 유튜브 ‘책 읽어주는 남자’와 같이 해설 영상을 찍어 주시면 어떨까 상상해봤음.

■ 『마을독본』 2023년 발간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가?

- **안현경 이사:** ‘기존의 것을 제대로 유지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마을독본』 개편에 있어 새롭게 적용할 것과 유지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정명진 소장:** 가장 크게 바뀌는 사항은 광역 센터가 직접 제작을 책임지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됨. 대중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단순히 사진 추가 또는 편집 디자인 변화 정도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임. 많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하면 좋겠음.
- **권영진 회장:**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마음껏 해보시기 바람. 강의를 할 때면 많은 글보다 사진 한 장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때가 있음. 이처럼 판형이나 편집의 변화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람.
- **심수진 팀장:** 전반적으로 딱딱하고 강의교재와 같은 느낌이 짙은 충남 스타일의 『마을독본』이 부드럽고 무겁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바람.

□ 진행 사진



대화마당 전체 참가자

심수진 팀장 발표 모습

강성준 연구원 발표 모습

좌장 발언 모습

안현경 이사 토론 모습

쟁점 토론 모습